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레즈비언 서사 연구 - “큐큐퀴어단편선” 시리즈(2018-2023)를 중심으로*

김소륜**

1. 서론
 - 1-1. 퀴어 담론 속 레즈비언 서사의 위치
 - 1-2. 비평 담론 속 레즈비언 재현 양상
2. '보통'의 삶과 일상의 서사
3. '경계'의 삶과 교차적 소수자성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출간된 “큐큐퀴어단편선” 시리즈를 중심으로, 201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레즈비언 서사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레즈비언 정체성이라는 ‘특수성’이 퀴어 일반으로 확장되면서 희석될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주목하고, 나아가 경계 위에 선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발표된 레즈비언 서사는 주로 남성적 폭력과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여성들 간의 연대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했다. 반면 최근의 서사들은 일상적 감정, 돌봄, 공동체적 삶의 층위에

* 이 논문은 제52회 중앙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2025년 2월 14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대우교수

서 '퀴어' 정체성을 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레즈비언 정체성이 젠더·계급·인종·장애 등과 교차하며, 유동적인 사회 관계망 속에서 감정·연대·공동체를 통해 재구성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201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레즈비언 서사의 확장 양상과 그 가능성을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이 젠더 정치학의 지형을 보다 다층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해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레즈비어니즘, 레즈비언 서사, 레즈비언 정체성, 퀴퀴어단편선 시리즈, 교차성, 소수자성, 퀴어)

1. 서론

1-1. 퀴어 담론 속 레즈비언 서사의 위치

1990년대에 등장한 '퀴어 이론'은 2000년대 이후 젠더 연구의 주요 프레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퀴어'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통적 담론에 부합하지 않는 주변부의 성(性) 정체성들을 대변하며¹⁾,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유동적이고 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개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퀴어'는 단순히 성적 소수자의 권리 옹호를 넘어서, 이성애와 남성 중심주의를 통해 '정상'으로 간주되어 온 '기존'의 사회 구조를 향한

1) Piantato, G., "How has queer theory influenced the ways we think about gender?", *Working Paper of Public Health (WP)*, nr.12, Azienda Ospedaliera Nazionale "SS. Antonio e Biagio e Cesare Arrigo", 2016, p.3.

저항 기제로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다원적 공존을 지향하는 퀴어 개념은 한국문학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2015년의 ‘페미니즘 리부트’를 기점으로, 퀴어 문학은 소수자들의 공개적 발화와 맞물려 문단의 주요 흐름으로 부상하였다.²⁾ 퀴어 문학의 재현 범위도 ‘성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담론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주요 문학상에서 퀴어 서사를 다룬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고, 비평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퀴어 문학’은 ‘퀴어’에 방점을 찍기보다 ‘문학’ 자체의 의미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최근 퀴어 문학은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때 한국문학에 나타난 ‘퀴어 담론’에서 주목할 점은 ‘레즈비언’ 서사의 부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출간된 “큐큐퀴어 단편선” 시리즈를 주목할 수 있다. 총 6권의 작품집에 수록된 41편의 작품 가운데, 여성을 중심화자로 제시한 서사가 무려 30여 편에 이르는 까닭이다. 이에 관한 작품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³⁾

2) “인터넷서점 예스24는 최근 5년간 출간된 퀴어문학 도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출간 종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출간 종수를 넘어설 정도로 출판계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 출간된 퀴어문학은 외서 2권이 전부였다. 2017년 국내서가 출간되기 시작하더니 2019년 13권, 올해는 15권 출간된 것으로 집계됐다.”- 배문규, <‘이상한’ 퀴어에서 ‘일상의’ 퀴어로>, 『경향신문』, 2020.12.22., <https://www.khan.co.kr/article/202009282206005>. (검색일: 2025.01.23.)

3) <표>에 제시된 ‘전체 편수’는 작품집 수록작의 ‘총편수’를 의미한다. 또한 인용할 작품의 수록 정보는 <표>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별도의 세부 표기를 생략한다. 소설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문 옆에 해당 쪽수를 괄호로 표기하도록 한다.

〈표〉 “큐큐퀴어단편선”에 수록된 ‘여성 화자’ 등장 작품

권수	발행 연도	소설집 제목	여성 화자가 등장한 작품			전체 편수
			작가명	작품명	편수	
1	2018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이종산	별과 그림자	4편	6편
			김금희	레이디		
			임솔아	뻘한 세상의 아주 평범한 말투		
			강화길	카밀라		
2	2019	인생은 언제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	조남주	이혼의 요정	5편	9편
			윤이형	정원사들		
			한유주	원을 구하기 위하여		
			최정화	라디오를 좋아해?		
3	2020	언니밖에 없네	김지연	사랑하는 일	5편	7편
			정소연	깃발		
			조우리	엘리제를 위하여		
			천희란	숨		
			한정현	나의 아나키스트 여자친구		
4	2021	팔꿈치를 주세요	황정은	올빼미와 개구리	6편	6편
			안윤	모린		
			박서련	젤로의 변성기		
			김멜라	논리		
			서수진	외출금지		
			김초엽	양면의 조개껍데기		
5	2022	나의 레즈비언 여자 친구에게	이유리	보험과 야쿠르트	7편	7편
			아밀	나의 레즈비언 뱀파이어 친구		
			송경아	다가가지 못하는		
			이주란	여름밤		
			김유진	수리와 안개		
			이주혜	소금의 맛		
6	2023	서로의 계절에 잠시	천선란	김은혜	3편	6편
			서장원	흰 밤		
			정보라	지향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큐큐퀴어단편선” 시리즈에 수록된 다수의 작품들은 중심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레즈비언리즘에 대한 문학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할뿐만 아니라 여성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물론 이러한 경향을 ‘레즈비언 서사’의 확장이나 진전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퀴어’가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유동성과 포괄성을 강조하는 개념인 만큼, 해당 담론의 확장 속에서 특정 정체성의 독자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레즈비언의 정체성’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점에서 복합적인 위치를 지니면서도, 퀴어 개념의 포괄성 속에 가려질 위험이 크다. 레즈비언 정체성은 ‘여성’ 또는 ‘동성애자’라는 단일 범주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성을 지니는 까닭이다.⁴⁾ 실제로도 레즈비언 정체성은 페미니즘과 퀴어 담론의 교차점에 위치하며, 이로 인해 양쪽 담론에서 이중 소외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퀴어 담론의 확장 속에서 레즈비언 정체성이 희석될 가능성에 대해 세심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현대소설 속에 재현된 레즈비언 서사가 퀴어와 페미니즘 담론의 교차점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주목하는 대상은 “큐큐퀴어단편선” 시리즈 전(全) 권이다. 물론 “큐큐퀴어단편선”은 편집자의 기획을 통해 퀴어 서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선보인 출판 기획물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이 엮은 첫 퀴어 단편집이라는 점에서, 작가들이 출판사의 기획에 어떻게 호응하며 창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4) 이에 대해 김미영은 레즈비언이란 ‘여성’이라는 ‘젠더정체성’과 ‘동성애자’라는 ‘섹슈얼리티’의 특성이 상호 연결되면서도 비상응성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김미영, 「성 정체성의 복합성: 레즈비언의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제10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07.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201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된 국내 레즈비언 서사의 특수성을 고찰하는 작업에서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해당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학 텍스트가 제시하는 레즈비언 정체성의 잠재성과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1-2. 비평 담론 속 레즈비언 재현 양상

국내에서 레즈비언 문학 담론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에 레즈비언을 다룬 서사가 문학적 제재로 적극적으로 수용된 까닭이다. 그 배경으로는 페미니즘 문학의 대두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에는 ‘여성 문학의 시대’로 불릴 만큼 많은 여성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당시 발표된 여성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상당수는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레즈비언 서사는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전복하며, 여성적 주체성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페미니스트 문학의 일환으로 ‘레즈비언리즘’이 수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초기의 레즈비언 서사는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되어온 경향이 강하다.

송명희⁵⁾는 이남희의 연작 〈플라스틱 섹스〉를 분석하며, 작가가 레즈비언이즘을 여성을 식민화하는 가부장적 이성애 결혼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임은희⁶⁾도 여성 간 동성애적 관계는 가부장제의 억압을 드러

5) 송명희, 「레즈비언이즘, 성적 마이너리티에서 이성애 결혼의 대안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2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내고, 여성의 몸을 해방적 주체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영의⁷⁾ 역시 여성 작가의 레즈비언 서사가 젠더와 가부장적 권력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가부장제의 억압과 젠더 권력의 문제를 비판하고, 여성 간 관계와 연대를 새로운 사랑과 주체성의 가능성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레즈비언 서사는 레즈비언 정체성이 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하기 위한, 여성 해방 담론의 일부로 해석되어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레즈비어니즘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공고히 하는 한편, 레즈비언 정체성이 여성 해방을 위한 도구로 제한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레즈비언 주체의 경험을 단순화하거나 특정한 문맥에 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김미현은 동성애 담론 내에서조차 여성이 ‘이중 소외’를 겪어왔다는 점을 주목하며, 레즈비어니즘이 이성애 주의를 거부하는 것에 비해,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⁸⁾ 실제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성애 제도가 남아있는 한, 여성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⁹⁾ 여성 억압의 주된 기제를 이성애 제도의 정치성이라고 본 까닭이다. 이에 김은하는 레즈비어니즘과 페미니즘의 결합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도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판타지로 소비하며 또 다른 타자화의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고

6) 임은희, 「2000년대 동성애 소설에 나타난 몸적 주체 양상과 타자성」, 『한중인문학연구』 제45집, 한중인문학회, 2014.

7) 심영의, 「관계와 사랑의 본질 그리고 퀴어(queer) 소설(들)」,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8) 김미현, 「타자의 정치학」, 『젠더 프리즘: 한국 젠더 문학의 열두 가지 키워드』, 민음사, 2008.

9)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302-324쪽.

지적인 바 있다.¹⁰⁾ 이는 1990년대 레즈비언 소설이 레즈비언 정체성을 단순화하거나 고정된 방식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비판과도 연결된다. 앞서 언급한 김미현¹¹⁾은 신경숙의 〈딸기밭〉에 나타난 동성애가 이성애적 남녀 관계의 대안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레즈비어니즘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남희의 〈플라스틱 섹스〉 연작도 지나치게 여성 해방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레즈비어니즘 자체의 순수성이나 특수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임은희¹²⁾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동성애 소재 소설들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배제하고 타자화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동성애 서사가 기존의 성 담론을 반복하거나, 왜곡된 성적 욕망의 재현으로 이어질 위험성에 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레즈비언 정체성에 관해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기도 하다. 레즈비언 서사 내부에도 성소수자 간의 권력관계와 젠더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에는 레즈비언 정체성을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더욱 복합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들이 늘어가고 있다. 퀴어 문학 담론 내에서 레즈비언 정체성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은경¹³⁾은 1990년대

10) 김은하, 〈[문화 프리즘]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성애〉, 『fallight.com』, 2007.04.07., http://www.fallight.com/bbs/board.php?bo_table=culture&wr_id=13. (검색일: 2025.02.01.)

11) 김미현, 앞의 글.

12) 임은희, 「동성애의 다문화적 인식에 나타난 타자성 고찰: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동성애 소재가 나타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0호, 대중서사학회, 2013.

13) 정은경, 「현대 소설에 나타난 “동성애” 고찰-천운영과 배수아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3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문학에서 레즈비언 관계가 주로 남성 폭력과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의 여성 연대로 그려졌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임은희는 가부장제의 시선 속에서 여성의 육체가 도구적으로 타자화되는 과정에 주목하며, 동성애가 성별 차이와 그에 따른 차별을 넘어 다원적 조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서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⁴⁾ 같은 맥락에서 박미선도 퀴어 정체성을 단순한 성적 지향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친밀성과 애도의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심진경¹⁵⁾ 또한 레즈비언을 단순히 ‘여성’이라는 범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와 섹슈얼리티의 복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레즈비언 경험을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되기’의 과정으로 조명하며, 규범적 섹슈얼리티에 도전하는 다양한 성적 실천을 가시화하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레즈비언은 “배타적으로 구별지어진 고유한 정체성의 이름”이 아니라 “레즈비언 경험을 통해 새롭게 조정되고, 배치되고, 구성된 존재들의 연속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¹⁶⁾

정리하자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레즈비언 서사 연구는 주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레즈비언 문학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며, 퀴어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레즈비언 정체성을 단순히 성적 지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복합성과 교차성의 차원에서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14) 임은희(2013), 앞의 글.

15) 심진경, <남성을 넘어 여성을 지나 떠오르는 레즈비언 - 김멜라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과사회』 제35권 4호, 문학과지성사, 2022, 25쪽.

16) 위의 글, 10쪽.

레즈비언 주제를 다루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그들의 고유한 문학적 특징과 레즈비언 재현 방식을 조명하는 연구도 학술적으로 꾸준히 누적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한국문학 내에서 레즈비언 서사의 변화 지점과 확장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보통’의 삶과 일상의 서사

“큐큐퀴어단편선” 시리즈의 문을 연 첫 소설집에는 총 6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4편이 여성을 주된 화자로 삼고 있으며, 그 중 3편이 미성년 ‘소녀’를 중심 화자로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두 소녀의 첫사랑을 다룬 이종산의 〈별과 그림자〉, 역시 소녀들 간의 미묘한 신체적·정서적 교류를 그린 김금희의 〈레이디〉,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성년의 연장선으로 읽히는) ‘청년’이 등장하는 임솔아의 〈뻘한 세상의 아주 평범한 딸투〉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레즈비언’과 ‘소녀’의 교차점으로, 이들은 단순한 성적 지향의 차원을 넘어서 나이·성별·계급·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위치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억압 구조 속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레즈비언의 ‘교차적 소수자성(intersectionality)’을 탐구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김벨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¹⁷⁾가 언급한 ‘교차성’을 통해 접

17) Kimberlé Crenshaw,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1989, University of Chicago, 1989.

근한다면, 레즈비언 소녀들은 이성애 중심적 규범이 지배하는 가정과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드러낼 수 없다. 그 속에는 연령과 경제적 종속성 등 다양한 계급적 조건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의 범주에 늘 도달하지 못하는 ‘미달’된 존재로서, 끊임없이 타자화된다. 이는 “정상이라는 것은 계급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해. 정상성은 그 영역 안에 종속되어야 안심이 되니까. 나는 비정상이어서 아픈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면서까지 정상이 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아팠어.”(135쪽)라고 고백하는 임솔아의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상성’이 하나의 규범이자 권력의 기제로 작동하며, 그 안에 편입되기 위해 주체가 자신을 스스로 억압하게 되는 구조를 고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 작품 속 인물들은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퀴어 정체성을 침묵하거나 자기부정의 형태로 내면화하기보다는, 그들 안에 자리한 내밀한 감정의 층위에 집중한다. 레즈비언 소녀들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교차성’의 문제를 사회적 고발의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일상의 삶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김금희의 <레이디>에서는 바닷가 텐트에서 “입고 있던 파자마와 속옷을 벗고 맨다리로”(61쪽)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던 두 소녀의 관계가 일상으로 복귀한 뒤에는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그동안 쓰던 방을 바꿔달라는 주인공의 요구로 가시화되는데, 이는 단순한 공간의 재배치를 넘어 감정과 정체성의 ‘재배치’를 암시한다. 그리고 방을 바꾸어달라는 딸과 “변화를 싫어했던 부모”(72쪽)와의 대비는, 딸의 정체성을 눈치 채지도 받아들이 생각도 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보수성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김금희 소설은 이러한 사회적 억압을 전면화하지 않는다. “재회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그것이 기적과도 같은 불행이었

다고 생각했다”(76쪽)는 결말의 서술은 사회 질서의 억압이 낳은 결과라기보다, 마치 상관없는 사람처럼 자신에 대한 흑평에 동의하던 친구(유나)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레즈비언 정체성을 사회적 구조와의 갈등으로 재현하던 전통적인 퀴어 서사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퀴어’를 더 이상 소수자들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상’의 서사로 확장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확장 가능성은 이종산의 <별과 그림자>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이 “햇볕이란 뜻일 때는 ‘경’이라고 읽고, 그림자라는 뜻으로 쓸 때는 ‘영’”(19쪽)으로 읽힌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첫키스를 나눈 ‘하트’라는 소녀와 사이좋게 자신의 이름을 나누어 갖는다. 두 소녀는 강렬한 빛에 의해 그림자가 지워지는 세계가 아닌,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선명한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보통의 삶’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레즈비언 서사는 더 이상 특별하게 조명되거나 예외적인 비극으로 설정되지 않는다. 첫키스를 나눈 후 서로가 서로에게 ‘행운’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벅참과 기쁨, 이를 통해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드는 존재들의 서사가 아닌 “빛도 그림자도 선명”(31쪽)한 서사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성년 레즈비언들의 서사는, 단일한 정체성 선언이나 갈등의 전형성을 제시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주체들의 미묘한 감정과 내면의 움직임에 주목함으로써, 퀴어 서사를 보다 복합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서사로 확장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발간된 작품집들을 통해, 성인에서 노년 여성으로 확장되며 꾸준히 이어진다. 천희란의 <숨>은 어린 소녀들을 넘어 70대 노년 여성인 정희라는 인물을 통해,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이 대단한 사건이

아닌, 매일 ‘숨’을 쉬듯 살아가는 일상의 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물론 그렇다고 차별이나 배제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게 너는 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았냐”(194쪽)고 묻는 순영에게 정희는 “여자가 좋아서 그랬지”(194쪽)라고 답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무려 3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서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은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한 사회적 억압과 배제가 아니다. 강조점은 그 속에 존재하는 내밀한 감정의 문제이다. 레즈비언 소녀들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의 발견을 다루었다면, 노년의 레즈비언들을 통해서 ‘공감’과 ‘유대’의 키워드를 주목할 수 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정희의 고백에 “너만 외로운 거 아니다”(195쪽)라고 답하는 순영의 말은 정희에게 ‘분명한’ 위로를 건넨다. 이는 정희가 젊은 시절 사랑에 빠진 상대가 단지 같은 레즈비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받을 수 있는 존재의 발견이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이는 황정은의 〈올빼미와 개구리〉에서도 이어진다.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살아가는 천지영과 김지금이라는 두 여성은 부부처럼, 아니 부부로서 오랜 일상을 함께 온 존재들이다. 이러한 삶의 공유는 이유리의 〈보험과 야쿠르트〉에서도 반복된다. 40대 레즈비언 커플인 이들은 각각 보험설계사와 야쿠르트 아줌마로 살아간다. 이들은 남편도 자식도 없기에 ‘의지할 가족이 없는 존재’로 지칭되지만, 두 사람은 분명한 가족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는 ‘선택된 가족’이라는 퀴어 공동체의 핵심 개념을 일상 속 관계를 통해 드러내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조남주의 〈이혼의 요정〉 역시 이혼 후 각자의 딸과 함께 살아가는 은경과 수연이라는 커플이 등장한다. 수연의 전남편은 이러한 상황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묻지만, 수연은 “우리 넷 지금 되게 좋은데? 왜 우리가 불행하고 혼란스럽고 우울할 거라고 넘겨짚고 그러지?”(34쪽)라고

반문한다. 또한 오호두의 <모노의 봄>에는 ‘모노’라는 의인화된 새가 등장하는데, 이때 모노는 둥지에 잔뜩 알을 낳은 두 마리의 암컷 꿩이갈매기를 마주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레즈비언으로서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일상의 서사들은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투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4권의 표제인 『팔꿈치를 주세요』에서 언급되는, 서로에게 내어줄 수 있는 ‘팔꿈치’와 맞닿아 있다. ‘팔꿈치’는 안윤의 <모린>에 언급된 상징적 표현으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난 미란과 영은 사이에 시작되는 ‘관계 맺음’을 가시화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영은이 자신을 안내하는 미란에게 건네는 ‘팔꿈치’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신뢰하는 ‘관계’ 맺기의 첫걸음을 상징한다. 영은의 왼손이 미란의 오른쪽 팔꿈치에 올라가고, 영은은 “이제 미란 씨만 믿을 거예요.”(71쪽)라고 말하는 장면은 ‘함께 걷는’ 행위가 물리적 ‘동행’을 넘어서 정서적 연대를 상징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작품 속에서 앞을 보던 세계와 앞을 보지 못하던 세계, 두 세계를 모두 다 살아보겠다는 영은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비극적인 상황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세계이자 삶이라고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레즈비언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과도 겹쳐진다. 이처럼 “큐큐퀴어단편선” 시리즈는 레즈비언 서사가 신뢰와 연대, 일상의 공존이라는 보편적인 감정과 관계의 서사로 확장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또 다른 예로 이주혜의 <소금의 맛>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 우연히 만난 두 주인공은 각각 한글과 일본어로 영화 <캐롤>의 원작 소설인 <소금의 값>의 도입부를 번역해 주고받는다. 서로 다른 언어를 통해 이어지는 두 사람의 관계는 번역의 ‘가능성’을 통해 소통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하며, 완전한 소통 역시 불가능함을 제시한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서로를 향한 진정한 이해의 시작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큐퀴어단편선” 시리즈를 통해 그려진 2010년대 중후반의 레즈비언 서사는 사회와의 적극적인 투쟁이나 완벽한 화해를 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소녀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레즈비언의 서사를 일상의 삶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서련의 <젤로의 변성기>에서도 이어진다. 50대 여성 오선재가 20대 여성 이희강에게 느끼는 성적 이끌림은 이 작품에서 성별, 세대, 사회적 위치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자 삶의 일부로 그려진다. 이에 레즈비언이 더 이상 ‘특수한’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서사로 나아감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는 퀴어 서사가 단일한 정체성이나 비극적 서사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발견되는 ‘보통의 삶’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3. ‘경계’의 삶과 교차적 소수자성

1990년대 한국문학에 그려진 레즈비언 서사는 대개 남성 폭력과 가부장제에 대한 피해자이자 생존자로서 여성들 간의 연대를 주목해온 경향이 강했다. 조남주의 <이혼의 요정>은 이러한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분명한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작품 속 수연과 은경은 각각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가운데 학부모 모임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인물들이 상대방을 자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달리, “은경 씨”와 “수연 언니”로 서로를 호명한다. 누군가의 ‘아내’ 혹은 ‘엄마’가 아니라, ‘수연’과 ‘은경’이라는 고유한 이름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이름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저항할 것임을 암시한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서, 딸들이 그들을 각각 “수연 엄마”와 “은경 엄마”로 부른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결혼을 통해 가부장적 가족 구도에 편입되며, 보통명사인 ‘엄마’라는 호칭 속에서 개별성을 박탈당한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이들은 각각의 고유한 이름과 결합된 ‘수연 엄마’와 ‘은경 엄마’로 호명됨으로써, 개별 정체성이 지워진 모성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가족 구도를 구성해낸다. 두 명의 엄마와 두 명의 딸로 이루어진 가족은 이성애 중심의 정상 가족 담론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셈이다.

아드리엔느 리치(Adrienne Rich)¹⁸⁾는 ‘이성애’를 생물학적 본능이 아니라, 여성을 종속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시스템을 내면화한 제도라고 보았다.¹⁹⁾ 또한 레즈비어니즘을 “여성에 접근할 수 있는 남성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하며, 단순한 성적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며 모성에 의거하여 남성중심적 지배”를 향한 저항이라고 보았다.²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은경과 수연의 서사는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로부터의 단순한 탈출을 넘어서며, 동시에 1990년대 여성 서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피해자적 연대와도 차별된다. 이들의 관계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성하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가족을 이루며 살아

18) Rich, Adrienne Cecile,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 15. Published b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pp.11-48.

19)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앞의 책.

20) 장미경,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문화과학사, 2002, 179-180쪽.

가는 주체적인 자기 서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흐름은 조우리의 〈엘리제를 위하여〉에서도 드러난다. 주인공 혜주는 ‘비혼 퀴어 여성’으로 살아온 ‘이모’ 성희로부터 레즈비언 전용바인 ‘엘리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여기서 언급된 ‘이모’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선택된 가족’에 해당한다. 이는 “가족이라는 법의 울타리 혹은 혈연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선택한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있고,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²¹⁾음을 제시한다.

한편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소설에서는 레즈비언 서사가 다양한 젠더·계급·인종·장애 등의 교차 지점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천선란의 〈검은혀〉, 서장원의 〈흰 밤〉, 정보라의 〈지향〉 등은 레즈비언이라는 성적 정체성을 넘어서 다양한 소수자성의 층위를 통합하며 ‘교차성’의 문제를 서사화한다. 우선 천선란의 〈검은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혀가 붉은 지구인으로서 받는 사회적 차별을 피해, 검은 혀를 가진 ‘코뿔’으로 보이고 자 아침마다 자신의 혀를 검게 색칠한다. 그런 가운데 붉은 혀를 가졌음에도 검은색을 칠하지 않은 여성을 만나고, 좁은 화장실 안에서 서로의 혀를 섞는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소수자성’이다. 이는 서장원의 〈흰 밤〉을 통해서도 연결되는데, 작품 속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함께 살던 여자 친구마저 떠나버린 여성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때 작가는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주인공에게 한국어 수업을 받는 ‘수인’이라는 인물의 사연을 서사화한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수인은 최선을 다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노력하지만, 다수의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된다. 폭행의 이유는 수인이 늦은 밤 술집 앞에 혼자 있었기 때문인지, 혼자 담배를 피우

21) 박주연, 〈여성·퀴어·노동 이야기가 없는 세상을 견딜 수 없어서〉, 『일다』, 2022.07.02., <https://www.ildaro.com/9383>. (접속일: 2025.04.01.)

고 있었기 때문인지, 재학 중인 여대 잠바를 입고 있었기 때문인지, 남성들의 희롱에 대꾸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녀의 얼굴이 이국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서인지 명확하지 않다. 실은 그 모든 이유가 교차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넘어선 ‘교차적 소수자성’이다.

정보라의 <지향>에서도 성적 정체성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들의 서사가 등장하는데, 정작 화자의 성적 지향성은 ‘무성애’와 연결된다. 여기서 초점화 되는 것은 여성들간의 연대가 아닌, 새로운 소수자들과의 중첩과 확장이다. 소수자 내부의 다층성에 관한 문제제기는 송경아의 <다가가지 못하는>에서도 이어진다. 주인공은 퀴어 퍼레이드에서 목격한, ‘BDSM’이라는 정체성을 주장하는 친구 ‘정인’을 통해 본인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소녀이다. 자신도 ‘BDSM’일지 모른다는 주인공과 정인의 관계는 ‘레즈비언적 관계’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동성혼이 합법화된 사회에서 두 명의 엄마를 둔 주인공을 통해, 소수자 속에서 존재하는 또 다른 소수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김초엽의 <양면의 조개껍데기> 역시 이러한 문제를 주목한다. 이 작품은 우주 바다를 배경으로, ‘셀브인’이라는 외계인 ‘셀리’의 몸 안에 공존하는 두 자아가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각각 ‘라임’과 ‘레몬’이라는 이름으로 공존하는 두 자아는 동시에 ‘류경아’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정은 인간 정체성의 다층성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한편, 한정현의 <나의 아나키스트 여자친구>는 트랜스젠더로서 ‘여성’의 삶을 선택한 ‘수호’와 이성애자인 여주인공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 한때 ‘남성’으로 만났던 상대가 ‘여성’이 되었고,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를 여성과 여성의 서사로 읽어 내기에는 분명한 무리가 따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물학적인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점이다. 이처럼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환원될 수 없는, 소수자 내부의 다양한 층위에 관한 문제를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정화의 <라디오를 좋아해?>에서 레즈비언인 주인공이 갖는, 소수 종교에 대한 편견을 통해 가시화된다. 레즈비언으로서 차별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이는 주인공이 ‘이단’이라 불리는 종교를 가진 동료 배제하는 태도는, 차별이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 얼마나 쉽게 반복되고 재생산되는지를 드러낸다. 이처럼 레즈비언을 소재로 한 다수의 작품들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관해 서사화한다. 이는 기존의 ‘레즈비언 서사’에서 벗어나 퀴어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앞서 언급했던 ‘레즈비언’이라는 특수성이 희석될 우려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해나의 <늦여름 매미>에는 레즈비언들의 아지트로 묘사되는 ‘로즈 다방’이 등장한다. 이곳은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았던 곳”, 즉 자신과 같은 존재가 과거에도, 지금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따라서 퀴어 커뮤니티의 ‘기억’과 ‘연대’의 상징으로, 레즈비언으로서의 특수성을 조명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 조우리의 <엘리제를 위하여>에도 비슷한 의미의 ‘엘리제’라는 공간이 등장한다. 주인공 혜주는 ‘비혼 퀴어 여성’인 성희로부터 폐업 위기에 놓인 ‘엘리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문제는 폐업을 막은 것은 물론, ‘엘리제’가 레즈비언 전용바를 넘어 일반 여성들까지 찾아오는 그야말로 ‘힙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장소가 되었지만, 바로 그 이유로 인해 기존의 레즈비언 단골손님들이 발길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의 상실이다. ‘엘리제’가 ‘대중적인 여성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레즈비언 당사자들의 정체성과 연대성이 약화되고, 공간의 본래적 의미가 희석되고 만 것이다. ‘엘리제’가 외부자의 시선과 소비 논리로 인해 그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퀴어 담론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소비해왔음을 가시화한다.

서수진의 <외출금지>에서도 이러한 선택적 수용의 문제가 언급된다. 동성혼이 합법화된 ‘호주’로의 이민을 선택한 레즈비언 커플 은영과 희율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툼을 이어간다. 이때 갈등의 초점은 과거 남자를 사귀었던 희율을 향해 “솔직히 네가 레즈는 아니지.”(171쪽) 혹은 “네가 무슨 레즈라고”(181쪽)라고 발언하는 은영의 발언을 통해 심화된다. 은영이 내뱉는 “너 되게 선택적으로 레즈비언 한다”(181쪽)라는 식의 발언은 레즈비언의 정체성을 고정된 범주로 규정하고,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배제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이분법은 윤이형의 <정원사들>에 등장하는 ‘레이’를 통해서도 접근된다. 그녀는 결혼해서 딸까지 있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에 대해, ‘진짜 퀴어’들에 대한 죄책감”(92쪽)을 호소한다. “죄송한데 레이님, 결혼하셨잖아요. 제도 안에 있으시잖아요. 차별받는 것도 없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왜 소수자 정체성까지 뺏어 걸치려 하세요, 힙해 보여서인가요? 퀴어 놀이가 재미있어요?”(93쪽)라는 말은 다른 누가 아닌, 레이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그들’의 세계로 떠나지 못하는 “내가 가짜 같아서”(94쪽)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남편이 존재하는 제도권의 정원과 여성들만이 머무는 정원 중 어느 하나를 이분법적으로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로 갈 수도 없고, 유리를 깨거나 문을 만들어 달고 싶다는 생

각도 들지 않지만, 그냥 그게 있다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99쪽)라는 레이의 발언은 “두 개의 정원을 가진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105쪽)기로 했다는 말로 이어진다. 어쩌면 최근 발표된 레즈비언 서사들이 추구하는 정체성의 방향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본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로 명확히 구분되는 존재가 아닌, 그 경계 위에 선 ‘존재’로서 말이다. 나아가 소수자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계와 그 경계 위에 선 존재들을 향한 ‘인정’이다. 우리 사회가 규정한 정상과 비정상, 단일성과 복수성,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다양한 소수자로서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의 자기 결정에 관한 문제를 주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큐큐퀴어단편선” 시리즈를 중심으로,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발표된 레즈비언 서사를 살펴보았다. 이때 주목할 점은 1990년대로부터 시작된 레즈비언 서사가 2010년대 이후로는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서사의 지형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1990년대의 서사가 주로 남성 폭력과 가부장제에 맞서는 여성 연대의 틀 속에서 레즈비언 관계를 다루었다면, 이후의 서사는 점차 일상과 감정, 개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레즈비언의 삶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성년 소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포괄하는 서사를 통해 일상과 보편성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에 해당한다. 또한 레즈비언 정체성을 더 이상 비극적 사건의 중심에 위치시키지 않고, ‘보통’의 삶 속에 배치하려는 움직임도 읽어낼 수 있었다. 성소수자로

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인물 간의 복잡한 관계성과 감정의 결을 세심하게 그려냄으로써, 레즈비언 서사를 특수한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 중심의 서사로 확장하고 있다고 말이다.

이 과정에서 레즈비언 정체성이 더 이상 고정되고 단일한 것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젠더·계급·인종·장애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교차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차성은 레즈비언 서사를 다양한 소수자성과 연결시키고, '경계' 위에 존재하는 삶으로 조명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시선은 레즈비언 서사가 퀴어 스펙트럼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동시에 이는 레즈비언 정체성의 특수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경계'에 선 존재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경계 자체'가 레즈비언 정체성의 새로운 정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201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문학에 재현된 레즈비언 서사는 '레즈비언'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에 갇히지 않고, 교차성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수자성과 접촉하며 서사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피해자 담론이나 고정된 정체성의 정치로 환원되지 않으며, 경계 위에 선 주체들이 자신만의 언어와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고 감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레즈비언 서사는 더이상 투쟁이나 정체성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과 연대, 일상의 삶을 통해 인간 보편의 감정을 탐색하는 이야기로 재편되고 있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연인들의 서사이자, 끊임없이 다투고 상처를 주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로 자리매김하며, '경계' 그 자체를 인정하는 확장된 서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종산 외, 『큐퀴어단편선1)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큐큐, 2018.
조남주 외, 『큐퀴어단편선2) 인생은 언제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 큐큐, 2019.
김지연 외, 『큐퀴어단편선3) 언니밖에 없네』, 큐큐, 2020.
황정은 외, 『큐퀴어단편선4) 팔꿈치를 주세요』, 큐큐, 2021.
이유리 외, 『큐퀴어단편선5) 나의 레즈비언 여자 친구에게』, 큐큐, 2022.
천선란 외, 『큐퀴어단편선6) 서로의 계절에 잠시』, 큐큐, 2023.

2. 논문과 단행본

- 김미영, 「성정체성의 복잡성: 레즈비언의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제10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07. 301-349쪽.
김미현, 『젠더 프리즘: 한국 젠더 문학의 열두 가지 키워드』, 민음사, 2008.
송명희, 「레즈비언이즘, 성적 마이너리티에서 이성애 결혼의 대안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2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79-99쪽.
심영의, 「관계와 사랑의 본질 그리고 퀴어(queer) 소설(들)」, 『민주주의와 인권』 제21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1, 193-224쪽.
임은희, 「동성애의 다문화적 인식에 나타난 타자성 고찰: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동성애 소재가 나타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0호, 대중서사학회, 2013, 505-537쪽.
_____, 「2000년대 동성애 소설에 나타난 몸적 주체 양상과 타자성」, 『한중인문학연구』 제45집, 한중인문학회, 2014, 155-177쪽.
정은경, 「현대 소설에 나타난 “동성애” 고찰-천운영과 배수아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3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79-112쪽.
장미경,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문화과학사, 2002.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Crenshaw, Kimberlé,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1989, University of Chicago, 1989 pp.139-167.

Rich, Adrienne Cecile,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 15, Published b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pp.11-48.

3. 기타자료

김은하, <[문화 프리즘] 한국문화에 나타난 동성애>, 『fallight.com』, 2007.04.07., <http://www.fallight.com/entry/%EB%AC%B8%ED%99%94-%ED%94%84%EB%A6%AC%EC%A6%98-%ED%95%9C%EA%B5%AD%EB%AC%B8%ED%95%99%EC%97%90-%EB%82%98%ED%83%80%EB%82%9C-%EB%8F%99%EC%84%B1%EC%95%A0>. (검색일: 2025.02.01.)

박주연, <여성·퀴어·노동 이야기가 없는 세상을 견딜 수 없어서>, 『일다』, 2022.07.02., <https://www.ildaro.com/9383>. (검색일: 2025.04.01.)

배문규, <‘이상한’ 퀴어에서 ‘일상의’ 퀴어로>, 『경향신문』, 2020.12.22., <https://www.khan.co.kr/article/202009282206005>. (검색일: 2025.01.23.)

심진경, <남성을 넘어 여성을 지나 떠오르는 레즈비언 - 김멜라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과사회』 제35권 4호, 문학과지성사, 2022.

Piantato, G., “How has queer theory influenced the ways we think about gender?”, *Working Paper of Public Health (WP)*, nr.12, Azienda Ospedaliera Nazionale “SS. Antonio e Biagio e Cesare Arrigo”, 2016.

Abstract

A study on Lesbian Narratives in Contemporary Korean Novels - Focusing on *QQ Queer Anthology Series* (2018–2023)

Kim, So-Ryun(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lesbian narratives in Korean literature since the late 2010s, focusing on the *QQ Queer Anthology Series* published from 2018 to 2023. It critically engages with the potential dilution of lesbian identity as it becomes subsumed under the broader category of queer, and seeks to illuminate new narrative possibilities emerging from subjects situated at the boundaries of identity.

While lesbian narratives from the 1990s to the early 2000s primarily depicted women as victims of male violence and patriarchy, emphasizing solidarity among women, more recent narratives tend to reframe queer identity through the lens of ordinary emotions, care, and communal life. This shift reflects an expansion of queer identity into the realm of universal human experience. Moreover, lesbian identity is increasingly portrayed as intersecting with gender, class, race, and disability, and as being reconstructed through affect, solidarity, and community within fluid social networks.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explores the expanding trajectories and possibilities of lesbian narratives in post-2010 Korean literature. Such an approach offers a modest yet meaningful step toward reading the landscape of gender politics in a more multilayered and complex manner.

(Keywords: Lesbianism, Lesbian narrative, Lesbian identity, *QQ Queer Anthology Series*, Intersectionality, Minoritized identity, Queer)

268 대중서사연구 제31권 2호

논문투고일 : 2025년 5월 14일

논문심사일 : 2025년 6월 11일

수정완료일 : 2025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5년 6월 16일